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0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6월 2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서울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한달 넘어

삼성을 상대로 진격 또 진격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업, 노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기업, 삼성을 상대로 무모해보이지만 거침없이 진격하는 동지들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지들이다. 작년 7월 노조를 만들고 1년 가까이 교섭 체결을 하지 못하고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멋진 투쟁을 만들어오고 있다. 2명의 열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지회 조합원들은 절박하고 견결한 결의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한달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지켜오고 있다.

겁 없이 무모한 노동자들이 삼성을 흔들고 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불법 경영방침을 고수하는 사이 1년 동안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를 하려면 현실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걸어도 삼성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역시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자들이 그런 삼성조차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본관 앞 700명의 노숙농성으로 삼성을 움직이고 있다.

20일에는 민주노총이 삼성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직무대행 곽형수 부지회장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무노조를 자랑으로 삼성에서 겁도 없이 2013년 7월 14일 노조를 설립했다”며 “누군가는 ‘삼성에서 노조하려면 목숨 걸어라’는 말을 한다. 아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곽형수 부지회장은 이어 “최종범 열사에 이어 염호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통하다”며 “이제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겠다. 이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종범이와 호석이의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고 밝혔다.

삼성에서 민주노조 하자!

지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끝없이 위축되고 밀려왔던 민주노조 진영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시대에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에 시달려왔던 민주노조가 무노조의 상징 삼성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면서 역습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 삼성에서 민주노조가 우뚝 서는 순간, 노동의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노조파괴 사업장의 재건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사수하자!

유성 어용노조 전기충격기 폭력, 경찰은 금속노조 체포

16일 유성기업 어용노조 위원장이 현장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폭력사건 조사를 위해 아산경찰서로 이동한 금속노조 간부 3명이 갑자기 체포되었다. 다음 날 아침 7기 부지회장도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동안 회사가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찰 2명이 어용노조 사무실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유성자본과 어용노조, 경찰이 미리 짜고 폭력사태를 유발해 경찰조사를 빌미로 유인해 체포한 것이라는 정황이 보인다.

그동안 검, 경찰은 유성자본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어용노조간 마찰이 발생해도 어용노조 조합원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수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4명의 동지들은 모두 풀려났다.



민영화 충격 보고서 영화 '블랙딜' 단체상영



<대전 지역>

-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19시
- ▶ 장소 :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정부청사역 3번 출구)
- ▶ 관람료 : 5,000원
- ▶ 신청 : 6월 23일(월)까지 (박종갑 정책국장 010-6421-8468)

<충북 지역>

- ▶ 일시 : 2014년 6월 24일(화) 18시 30분
- ▶ 장소 : 충북대병원 대강당
- ▶ 관람료 : 무료

정식품노조, 통상임금 쟁취하며 2014년 임단투 승리

민주노총 충북본부 정식품노동조합은 20일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 통상임금 타결금, 정년연장 등 9개 항의 합의안을 조합원 7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 △통상임금 체불금에 대한 타결금 400만원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여성조합원 부서간 동일호봉 적용 △상집회의 연6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3년치의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어려움을 수용해 400만원의 타결금으로 합의했다며 노동조합의 양보는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 밝혔다. 정식품은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600%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통상임금 투쟁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왜곡된 임금 구조를 바로잡고, 장시간노동 철폐와 일자리 나누기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며, '정식품 통상임금 전면 적용 쟁취의 성과가 적게 일하고, 모두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적용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온 정식품노조의 임금협상 타결 소식은 청주산업단지 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임금협상을 미루고 정식품의 임금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6.16 노조파괴 규탄, 세월호 촛불집회>



<6.17 교섭위원 수련회·모의교섭>



<6.18 KDK분회 조합원 모임>



<6.19 통상임금 쟁취 약식 결의대회>